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 초시네 증손녀(曾孫女)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년은 개울둑에 앉아 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 주었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 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 속을 뻘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 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둑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째 물만 움켜 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 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 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리고는 별떡 일어나 팔짝 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획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별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이제 저 쪽 갈밭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돋움을 했다.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 쪽 갈밭머리에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년은 이 갈꽃이 아주 뵈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전혀 있었다.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 황순원, '소나기'

(나)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덕, 푸드덕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푹 오소리같이 실락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었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덕 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덕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멧을 부러 가며 여지없이 닭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

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어 붉은 선혈은 푹푹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 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 놔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쟁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안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한참 망아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때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배알은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대인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 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계를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쪼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 일날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도 없고, 뿐만 아니라 췌근췌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걸 또 뭐야 싶어서 그 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 흉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이렇게 쪼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얼어질 듯 자빠질 듯 논둑으로 힘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 쟁이질: 한창 바쁠 때에 쓸데없는 일로 남을 귀찮게 하는 것

- 김유정, '동백꽃'

17. 위 두 작품에 등장하는 '소녀'와 '점순이'의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다. 두 인물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하여 그 내용을 쓰시오(10점).

—<보 기>—

【유의 사항】

- 두 작품 중 어느 한 작품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두 인물의 대화를 구성할 것.
- 희곡의 대사 제시 방식을 따라 답안을 작성할 것. 대화에 지문을 포함시키는 것은 채점에 유리한 조건이 됨.
-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심리를 잘 드러낼 것.

18. 위 두 작품과 유사한 내용으로 소설을 한 편 쓰려고 한다.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 소설의 앞부분을 쓰시오(10점).

—<보 기>—

【유의 사항】

- '점순이'의 성격이나 내면 심리를 닮은 주인공을 등장시키되, 중학생 또래의 인물로 설정할 것.
- '감자'나 '조약돌'과 같이 작품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소재나 단서를 포함할 것.
- 400자 내외 (±40자)로 쓸 것.